

혜택이 와르르...장흥군 출산장려 시책 호응

풍진 검사·탄생축하용품·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올해부터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2세로 확대

장흥군이 매년 감소 추세인 출산을 회복을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내놓아 지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0일 장흥군에 따르면 출산을 앞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7만원 상당의 풍진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B형간염 항체검

사를 비롯한 총 5종의 임부 산전검사를 실시해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한 준비과정을 돕고 있다.

출산 가정에 돌아가는 혜택도 많다. 장흥군은 지난해부터 분만예정일이 되면 10만원 상당의 탄생축하용품을 각 가정으로 배송하고 있다.

또 첫째 아이를 낳으면 70만원을, 둘째는 200만원을, 셋째는 500만원을 양육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자를 전 출산가정으로 확대해 소득에 관계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장흥군은 특히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원하는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30~70%까지 지원하는 등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도 만1세 미만에서 만2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지난해 연말 이전에 서비스 이용이 종료된 대상자도 재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은 전국에서 아토피 발병률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아이를 키우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면서 “임신과 출산, 양육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계속 발굴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전동평 영암군수와 군 직원들이 최근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등에서 군민과 귀약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생활화 등을 홍보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도로명주소 사용을 생활화 합시다

영암군 설 명절 홍보 캠페인

영암군은 “설 명절을 맞아 영암읍과 학산면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군민과 귀향객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와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본격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주소 생활화 조기정착과 실생활화 사용을 위해 마련됐으며, 전동평 영암군수와 군 직원들은 우리집 주소 표기와

위치 찾는 방법 등을 안내하고, 홍보물품(쟁반, 장바구니, 물티슈) 및 전단지들을 배부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착오에 따른 배송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기재하는 등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내시설물을 보수하고, 도로명 중심의 위치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암=전통헌기자 jbh@

영암군 산림조합, 미암면 지역아동센터 후원금 전달

영암지역 어린이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30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최기열)와 영암군 산림조합(조합장 김재성)은 영암 미암면 소재 지역아동센터(센터장 최옥주)를 방문해 후원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미암면 미촌마을 출신이기도 한 최기열 본부장은 “평소 고향마을의 지역아

동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설 명절을 맞아 기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영암군 산림조합도 설맞이 사랑나눔행사로 쌀과 라면, 휴지 등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앞서 미암지역아동센터에 책·결산을 지원하기도 했다.

김재성 영암군 산림조합장은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건강하게 자라 지역사회에 힘을 보탬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암=전통헌기자 jbh@

강진군 명인·명품·명소 신규지정 신청

내달 16일까지 접수

강진군이 지역의 맛과 가치를 보여주자는 명인, 명품, 명소를 찾는다.

강진군은 “2월 16일까지 2017년 명인·명품·명소 신규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강진군은 명인·명품·명소 지정을 통해 가치있는 상품으로 개발하고 강진 명인·명품·명소라는 브랜드를 덧입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지정신청은 군 미래산업과와

해당 실과소, 읍면사무소를 통해 받는다.

명인은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분야, 식품분야이며 명품은 음식분야를 포함한다. 명인으로는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하면서 기예가 뛰어난 사람, 명품은 강진군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 명소로는 역사·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곳 등이 신청 가능하다.

한편 강진군은 2012년 조례 제정 이후 2017년 1월 현재 명인 22인, 명품 15개, 명소 20곳 등 총 57건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장흥고 동아리 벽화 그리기 재능기부

장흥고등학교 동아리 컨셉터(회장 한지연)은 최근 지역 내 노인요양원을 방문해 농촌풍경 벽화그리기 재능기부를 했다. 동아리 회원 6명과 이흥두 지도교사가 참여한 벽화는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것으로, 자연 친화적인 장흥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 ‘까망토’ 전국 입맛 사로잡았다

흑토마토...연간 740t 생산

서울·부산 등 대도시서 인기

강진산 검은 흑토마토인 ‘까망토’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30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군의 토마토는 과육이 무르익지 않고 쫄깃한 식감이 유명인데, 특히 색이 검은 흑토마토는 ‘까망토’라는 브랜드로 서울, 부산 등 대도시 공판장과 전국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인

기다. 강진 흑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황산 화합물이 일반토마토보다 3배 이상 함유

돼, 혈전 형성을 막아주고, 뇌졸중과 심근경색 예방 및 노화방지, 항암, 혈당저하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진지역에서는 현재 20농가 8.6ha에서 연간 740톤을 생산해 마음애그린공동선별장에서 공동선별작업을 거친 뒤 전국 시장에 유통하고 있다. 강진군은 남도의 끝자락으로 일조량이 좋고 기온이 온화해 생산량과 맛에서 월등히 뛰어나다는 평가다.

운장호 농업회사법인 한마음토마토 대표이사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고 건강에도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 전 회원이 모여 기술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향후 전문 감사진을 초청해 선진기술을 꾸준히 도입하고 기술력을 발전시켜 강



진의 ‘까망토’가 전국 최고의 명품 토마토로 자리 매김할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까망토 구입문의는 초록민음직거래지원센터(061-433-8844) 또는 한마음토마토 운장호 (010-6617-8375)로 하면 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3년안에 승부 납니다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